

부처님과 함께 '송구영신'

해인사 등 50여 사찰 겨울 수련회 준비

겨울산사에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합천 해인사, 해남 대흥사, 오대산 월정사 등 전국 50여 사찰은 일반인과 불자들에게 연말연시를 사찰에서 보낼 수 있도록 겨울 수련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겨울수련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의 폭이 넓어진 점. 자유정진, 자비명상, 선수련회 등

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광주 마곡사와 대흥사, 인제 백담사 등은 종교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해인사, 장성 백암사, 예산 수덕사, 창원 서원사, 원주 구룡사 등은 심도 깊은 수련을 할 수 있는 참선, 1080배 정진 등을 준비했다. 사찰의 특성을 활용한 특색 있는 수련회를 준비하는 사찰도 많다. 공주 영평사의 7일간의 단기불교, 정읍 유선사의 약사재 독송법회, 안동

신흥사의 한문학당, 흥천 칠불선원의 산골마을 체험, 경주 골굴사의 선무도 수련, 보성 대원사의 관정기도 등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를 기다리고 있다.

어린이, 어머니, 가족, 외국인 등 대상층도 다양해졌다. 골굴사는 일반인과 외국인, 초·중·고생을 나누어 수련회를 실시하며, 대흥사와 안동 신흥사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한문학당을 개최한다. 또 군위 지보사는 어머니, 화성 신흥사는 청소년 수련회를 각각 준비한다.

원주 위봉사, 광주 명성암, 서울 봉은사, 대구 관음사, 예천 서약사 등은 성도절(12월 30일)에 특별 수련회를 연다.

조계종 포교원 신정보센터(<http://info.ibuddhism.org>)는 이같은 겨울 수련프로그램을 총망라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겨울수련회 개최 사찰

| 지역 | 사찰 | 일정 | 주요프로그램 | 전화 |
|----|------|--|--------------|---------------|
| 서울 | 삼보사 | 12.20-21 | 물사랑 건강수련 | (02)352-6406 |
| 대구 | 동화사 | 12.31-2004.1.1 | 참선, 1080배 | (053)982-0101 |
| 화성 | 신흥사 | 2004.1.6-8 1.11-14 1.17-18 | 다도, 공동체놀이 | (031)357-2896 |
| 광주 | 명성암 | 12.30-31 | 3천배 정진 | (031)762-9026 |
| 평창 | 월정사 | 12.19-21 12.29-30 | 술길 산책, 자유정진 | (033)332-6664 |
| 원주 | 구룡사 | 12.19-22 12.26-29 | 참선, 예불, 율력 | (033)732-4800 |
| 예산 | 수덕사 | 매월 3,4주 주말 | 참선, 칠야정진 | (041)337-6565 |
| 공주 | 마곡사 | 매주 주말 | 명상, 참선, 자유정진 | (041)841-6220 |
| 공주 | 영평사 | 12.30-2004.1.5 | 청소년 단기불교 | (041)857-1854 |
| 경주 | 골굴사 | 매일 | 선무도 수련, 참회 | (054)744-1689 |
| 예천 | 서약사 | 12.30-31 | 간경 칠야정진 | (054)655-0108 |
| 합천 | 해인사 | 12.11-14 12.18-21 12.25-28 | 참선, 1080배 정진 | (055)931-1001 |
| 창원 | 서원사 | 12.17-19 12.24-26 12.31-2004.1.2 1.7-9 1.14-16 1.21-23 | 선문강좌, 참선 | (055)291-6405 |
| 해남 | 대흥사 | 12.19-21 | 암자순례, 술길 산책 | (061)534-5502 |
| 장성 | 백암사 | 12.27-31 2004.1.7-11 1.29-2.1 | 참선 | (061)392-7502 |
| 보성 | 대원사 | 매주 주말 | 좌선기공, 관정기도 | (061)852-1755 |
| 제주 | 원명선원 | 12.24-28 12.31-2004.1.4 | 참선, 독경 | (064)755-3322 |

불교종립대학들

2004 신입생 모집

불교 종립대학들이 2004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에 들어간다.

동국대는 12월 10-15일 가, 나군으로 분할 모집한다. 인터넷(www.dongguk.edu)을 통해 원서를 접수하며, 수능성적만 반영한다.

12월 1일부터 정시 모집에 들어간 위덕대는 15일까지 나, 다군으로 분할 모집한다. 위덕대는 14개 학부, 25개의 전공으로 개편해 학교생활기록부 40%, 수능성적 60%를 반영한다. 접수는 인터넷(www.ui.edu) 및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금강대는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정시모집을 실시한다. 총 75명을 선발하는 정시모집에서 불교학전공은 나군과 다군으로 나누어 총 14명을 선발한다. (041)731-3114

박봉영 기자

북한어린이이용 분유 2톤

평화불교연대 26일 전달

북한어린이들이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는 평화실천 광주전남 불교연대(상임대표 행범, 이하 평화불교연대)는 11월 24일 인천항에서 조선불교도연맹으로 보낼 분유 2000kg을 선적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분유는 평화불교연대 회원들이 매주 일요일 무등산 문민정사 앞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펼쳐 구입한 것이다.

분유는 26일 선박편을 통해 북한 조선 불교도연맹에 전달됐다.

이준엽 기자



◇4개 종교인들이 가톨릭센터에서 광주우체국까지 평화의 촛불행진을 펼치고 있다.

“전쟁 막아 자비·사랑 실현하자”

이라크 파병반대 4대종교 시국기도회

이라크에서 한국 민간인에 대한 테러로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파병반대를 위한 4개종교 '시국기도회'가 12월 4일 광주 가톨릭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시국기도회에는 불교계에서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 광민 스님, 평화실천 광주전남불교연대 상임대표 행범 스님과 개신교 강신석 목사(광주 NCC), 원불교 이응원 교무(남광주 교당), 천주교 박철

수 신부(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열린 시국기도회에서 각 종교 대표들은 이라크 파병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파병반대를 위해 온 국민이 뜻을 함께해 평화를 이루어 나갈 것을 기원했다.

참석자들은 가톨릭 센터에서 광주우체국까지 평화의 촛불행진을 펼쳤다.

광주=이준엽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택시

1588-5532

불교환경연합으로 확대 개편

불교환경연대, 전환위원회 구성 결의

불교환경연대가 불교환경연합(칭)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불교환경연대는 12월 3일 조계사 불교대학 1강의실에서 개최된 2003년도 정기총회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세영 스님, 정성은 사무처장 등이 포함된 전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정기총회에서는 또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 실무력 제고를 위해 사찰·신도회 소임자 대상 환경 강좌 년 4회 실시 △불교환경연구소 설립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불교환경포럼 연 2회 진행 △상임대표 수경 스님의 생명평화순례 참여 등을 2004년 사업으로 확정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지난 9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10개 종단들이 동참하는 불교환경연합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바 있다.

남동우 기자

현불사 옆 고압송전탑 건립 저지

주지 고성 스님, 열흘째 단식 농성

광양 가야산 현불사 옆으로 지나가는 고압 송전탑 건설 저지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1년9개월째 대지중인 주지 고성 스님이 결국 최후 수단으로 단식에 돌입했다.(사진)

“법당에서 백미더도 안 되는 곳으로 345kv 송전탑이 세워지는데다가 다른 곳으로 지나가는 154kv 고압선마저 이곳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12월 4일로 단식 10일째를 맞는 스님은 “사찰옆으로 두개의 고압선이 지나가면 더 이상 사찰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죽음을 자초할 단식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광양시청 앞에서 찬바람을 맞아 가며 혈혈단신 단식에 돌입한 스님은 “제철소의 화유로 주민들이 서로 반목, 대립하는 극심한 갈등을 보이고 있어 더욱 안타깝다”며 “빨리 사



참이 정상화 돼 예전처럼 신도, 주민들이 쉬어가는 도량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양=이준엽 기자



개인 성타스님·박광서 단체부문 동산반야회

17일, 대원상 시상식

제 1회 대원상 개인부분에 성타스님(전 조계종 포교위원장, 사진 왼쪽)과 박광서 상임대표(참여불교재가연대, 가운데), 단체부분에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 오른쪽)가 선정됐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이 설립자인 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한국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현대화를 위해 제정한 대원상은 불교포교에 기여한 개인에게 각 1천만원, 단체에게 1천5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자연환경보존과 수환경보존을 위한 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 소임을 맡고 있는 성타 스님은 불교환경운동의 대사회적 인식을 높인 공로이며, 박광서 서강대 교수는 우리는 선우, 참여불교재가연대를 창립해 상임대표로 활동하는 등 실천하는 불자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산반야회는 동산불교대학뿐 아니라 네발달리기, 기아돕기, 열혈만일 운동 등 국내외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는 평이다.

시상식 및 기념강연회는 12월 17일 오후 2시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열린다.

김원우 기자

책 권하는 사회



여수령 (취재2부 기자)



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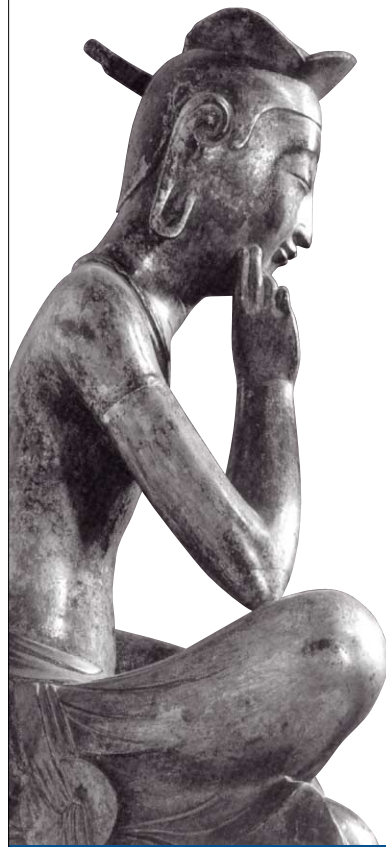
한 권의 좋은 불서는 신심을 돈독하게 하는 것은 물론 수행정진의 나침반이 되기도 한다. ‘종이거울 자주보기 운동’의 ‘불서읽기 운동’을 시작으로 책임기와 마음담기 모두 생활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이 공허한 외침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서랍으로 나가 불서 한 권 구입해 보자. 이 겨울, 당신이 읽은 책 한 권이 든든한 마음의 양식이 될 것이다.

최근 사회일각에서 ‘독서운동’이 번져나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충남 서산시와 전남 순천시의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비롯해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독서세물결운동’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범국민적인 독서운동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불교계에서는 안성 도피안사가 ‘독서운동’의 불을 지폈다. 도피안사는 지난 7월부터 조홍식 교수(성균관대와 이시우 박사, 만화가 박


재동, 백백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지도위원들을 중심으로 ‘종이거울 자주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불서 읽기는 곧 부처님 마음을 찾는 일’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이 운동은 독서를 통해 개인의 정신적 자각과 성숙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그동안 ‘문자(책)는 깨달음에 방해가 된다는 잘못된 믿을 때문에 불자들이 책을 잘 안 읽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불교계에서 이러한 독서운동이 펼쳐지는 것은 다행스



삶과 지구를 생각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생(共生)을 생각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상생(相生)을 생각합니다.
전통과 첨단을 생각합니다.
역사와 미래를 함께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더불어 행복한 Win-Win의 내일을 생각합니다.



2003 동국대 백주년

100년의 아침 그리고 스무살의 아침- 동국대학교